



恩津宋氏宗報

홈페이지 : ej song.co.kr E-mail : ej s0835@hanmail.net

은송인(恩宋人)의 정신

충효(忠孝)의 정신
고결(高潔)한 선비정신
은덕불사(隱德不仕)의 정신
송조목족(崇祖睦族)의 정신

■ 發行人/宋錫根 ■ 編輯人/宋在億 ■ 印刷人/宋富鎬 ■ 發行處/恩津宋氏大宗會 大田廣域市 大德區 同春堂路 161 ■ 電話 (042)256-0835 / 電送 (042)633-0531

2024년도 은진송씨 대종회 선적지 순례 선조님의 문화유적지 순례로 송조정신 진작과 종중의 화합

대종회에서는 2019년 4월 30일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과 부석사에 선적지 순례를 다녀 온 후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지 5년 만에 2024년 5월 28일(화) 종친들을 모시고, 선조님들이 남기신 문화유적지 순례를 통하여 조상에 대한 송조정신을 진작시키고 종중의 화합과 종친간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선적지 순례를 실시하였다.

고문, 대종손(송교진), 상무유사, 대종회 예하 39개파의 공사원, 파유사 및 각 위원들과 대종회 사업에 적극 협조한 종인 67명이 참여하였다.

8시반에 대전 법동 대종회 사무실을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송석근 대종회장은 차내 인사말씀에서 화창한 봄날 종친들을 모시고 2024년도 선적지 순례를 하게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유적답사와 더불어 종중화합의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행사의 취지 설명과, 당대의 우리 선조님들의 고고한 선비정신을 되새겨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정신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인사말씀에 이어, 송성호 파유사회 의장은 김인후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과 은진송씨와는 동춘당, 우암 선조님때부터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규암 문충공파 파시조이신 송인수(宋麟壽) 선조님이 전라남도 관찰사일 때 왕명으로 “기영정”을 건립한 내력 등 장성과 은송가문의 인연을 설명하며 이 순례행사는 우리 은진송씨 종중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자리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씀을 하였다.

이어서 송교진 대종손, 송희원 고문과 목사공종중 송서호 회장, 사직공종중 송기수 회장, 장성공파 송영래 공사원, 대종회 파유사 등 많은 분들이 인사말씀에서 한결같이 종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감사의 말씀을 하였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여 11시에 전남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에 있는 필암서원에 도착하니 필암서원 김상백 도유사와 김진산, 김재완 부도유사를 비롯한 서원 관계자들이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 선적지 순례

필암서원은 2019년 7월 6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중 하나이다.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문묘에 배향된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한 우동사에서 현판 대종회장 송석근, 집례 송창공파 송구영, 촉관 장성공파 송영래, 찬인 동파공파 송수호, 봉향 추파공파 송희린, 봉로 연안공파 송지영, 사세 유선자가 봉심분정을 받아 분향봉심례를 올린후, 단상에서 필암서원 도유사 김상백의 인사말과 원임 도유사 박래호의 우리 은송과 필암서원의 깊은 관계를 듣고, 문화해설사의 안내로 서원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동춘당, 우암 선조님의 발자취를 느껴 보며 유물관도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서원입구에 있는 “학연루”의 현판은 우암 송시열(1607~1689) 선조님이 쓴 것이며, 청절당 대청마루의 “청절당” 현판과 유생들이 공부하며 생활하고 잠을 자던 동재인 진덕재와 서재인 송의재 편액은 동춘당 송준길(1606~1672) 선조님의 글씨이다.

이어서 장성댁 근처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불고기와 육회로 점심식사를 하고, 호남의 천년고찰 백양사로 향했다. 백양사는 632년 백제의 승려 여환이 백암산에 창건한 사찰로 대웅전, 극락보전, 사천왕문 등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곳이며 우암 송시열 선조님의 후손이자 애국지사인 송병선(1836~1905) 선생은 백양사가 자리한 백암산을 ‘기려유장 위남국명산 奇麗幽壯 爲南國名山’이라고 하였으며, 절 일대의 비자나무 숲

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약 3만 그루가 밀집하고 있어 춘

(대종회 총무유사 송인집)

재경 대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2024년 5월 25일(토)에 은진송씨 재경 대종친회의 정기총회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세종호텔 1층 회의실에서 은송의 39개파 종친 80여명이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송창용 총무이사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선령에 대한 묵념을 정중히 올리고, 은송 21대 손인 송삼덕 회장의 재경종친회 회원님들이 가족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뒤흔겨 댄서 반갑고 그동안 많은 협조로 오늘의 재경종친회가 발전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하였다.

그리고 은진송씨 대종회장 송석근, 파유사회 의장 송성호,

전.세종연구소장 송대성, 효성건설 고문 송형진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어서 그동안 동종친회 발전에 모범적 헌신을 한 감사 송낙현, 이사 송위식, 이사 송재동, 이사 송주영에게 감사패 전달식을 하였고, 송윤지(성신여자대학교 2학년), 송현지(단국대

학교 2학년), 송호찬(송림고등학교 3학년), 송민준(경기북 과학고등학교 3학년)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으로 대학생 일백만원, 고등학생 칠십만원을 수여하고, 특별상으로 3대가 참석한 종친 3가정에 참석권장 특별상을 수여하였다. 다음은 송창용 총무이사의 은진송씨 재경 대종친회의 경과보고, 재무보고, 동종친회 재무회계처리가 적정하였음을 감사 송낙현이 감사보고를 하였다.



▲ 재경 대종친회 정기총회

이어서 동종친회의 임원개선결과 신입임원들의 간곡한 고사표명이 있었으나 은송 39개파 종친모임의 발전을 깊이 사려하기 바라며 종회의 여흥을 북돋우는 첼로 특별연주를 하는 속에서 세종호텔이 마련한 음식을 먹으면서 오랜만의 재경 은송인 간의 따뜻한 정을 깊이 나누고, 준비한 종회기념품을 들고 삼삼오오 밝은 웃음으로 헤어졌다.

(은진송씨 재경 대종친회장 송삼덕)

<공무원 및 파유사 변경>

파명	날짜	내용
잠부공파	2024.05.08	공무원 송정현을 송만호(宋滿鎬)로 변경
야은충현공파	2024.05.22	공무원 송중호를 송문호(宋文鎬)로 변경(파유사 겸직)

동춘당 송준길 송모제례 봉행

2024년 4월 27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역사공원에서 동춘당 제352기년 송모제례를 봉행하였다.

이날 송모제례 참제는 대덕구청 및 회덕향교, 동춘당문정공파(송용순 도유사) 종중 관계자와 송석근 대종회장, 송동호, 송준빈, 송태영 고문과 송인집 총무유사, 송인한 장재유사, 목사공종중 송서호 회장, 송기영 총무유사, 송화영 장재유사, 송영진 동춘당문정공파총무, 송성빈 종보편집위원, 호군공파 송덕영 공사원, 송도영, 송인선, 삼가



▲ 동춘당 송준길 송모제례 봉행

공파 송윤영, 사우당효정공파 송진팔 공사원, 통정공파 송지영, 쌍계당공파 송철기 도유사, 판관공파 송용범 공사원, 추파공파 송계용 공사원, 우암문정공파 송영문 종인 등 은진송씨 후손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집례 송인수의 창홀로 장엄한 궁중제례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성대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최충규 대덕구청장, 아헌 송남섭 성균관유도회 대전광역시본부 회장, 종헌 임덕순 회덕향교 장의, 집례 송인수 회덕향교 장의, 축 송영래 장성공파 공사원, 찬창 송구영 송창공파 공사원이 맡았다.

제례가 끝난 후 동춘당문정공파 도유사 송용순으로부터 동춘당 역사공원의 유래 및 동춘당의 삶에 대한 소개와 감사의 인사말이 있었다.

동춘당 송모제례는 송준길 선생의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며 고결한

선비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 계승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이다.

동춘당 송준길(1606년~1672년 향년 67세) 선조는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시호는 문정(文正),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대사헌, 우참찬, 병조판서 등 국가요직을 맡았으며 1673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1681년 시호로 문정이 하사되었

으며 1756년 문묘(文廟)에 배향되어 우리 민족의 대학자로 추앙받고 있다.

대덕구가 주최하고 대덕문화원과 회덕향교가 주관하는 동춘당문화제는 1996년에 시작된 이래 금년에 27회를 맞이하여 동춘당 송준길 선조의 생애 및 사상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자 열리는 역사문화 축제로 오전 10시 30분 송모제례를 시작으로 유교 경전암송, 동춘장터, 다도체험, 전국회화대회, 문정공 시호봉송 행렬, 동춘당 역사문화탐방, 버스킹공연, 장사익-동춘콘서트 이렇게 9가지의 행사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은송의 잠부공파 송재선 훈장(비봉서당)의 가훈 써주기 선행에 지역주민들이 운집하는 광경은 은송인의 자긍심이 돋보였다.

(동춘당문정공파 도유사 송용순)

뿌리공원 전국문중협회, 2024년 임시총회

지난 1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사)뿌리공원전국문중협회(이사장 정진남)는 5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전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에 소재한 효문화마을관리원의 대회의실에서 임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뿌리공원 내에 성씨 조형물을 조성한 전국 244개의 성씨 문중의 대표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사단법인 출범을 축하하였으며 임원 위촉과 감사보고, 사업계획보고 등을 진행하며 총회 일정을 진행했다.

정진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998년 창립된 전국문중협회가 올

해 1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가 남에 따라 그 역할과 사명이 한층 높아졌다.”라며 “이에 전국문중협회의 책무가 많아짐에 따라 문중 전체가 협일하며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는데 이장우 대전시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그리고 이진삼 충청향우회 중앙회 총재, (사)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박상도 회장, 김제선 대전중구청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은송에서는 추파공파 송남섭 성균관유도회 대전광역시본부 회장과 송인한 대종회장 장재유사가 참석하였다.

(대종회

장재유사 송인한)



▲ 뿌리공원 전국문중협회 임시총회

「목사공종중 발전을 위한」 선적지 순례

목사공종중(회장 송서호)은 「2024년 목사공종중의 발전」을 위한 선적지 순례 행사를 지난 2024년 4월 30일 「선조님의 유훈과 업적을 봉송하고, 종원간 화합과 종중의 발전」을 목적으로, 목사공종중 예하 21개파 공사원, 파유사 및 고문, 상무유사님과 대종손(송교진), 대종회 송석근 회장님을 비롯한 대종회 임직원, 각 종중 대표님 등 42분을 모시고 선적지 순례행사를 실시하였다.

송서호 회장은 차내 인사말씀에서 봄빛 화사하고 따뜻한 날씨에 종중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선적지 순례를 「목사공종중 발전」이라는 표제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우암계서 “내가 생각건대 호서에는 예로부터 3대 죽이라 일컫는 바가 있으니 연산의 김씨, 니산의 윤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회덕의 송씨이다. 라고 「회덕향안」 서문에 지목하셨다.”라는 말씀 아래, 금년에는 호서 3대 명족 가문의 유적답사가 되겠다고 행사의 취지 설명과, 당대의 고고한 선비정신을 되새겨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정신으로 승화시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잠시라도 상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인사말씀을 하였다.

또한, 대종회 회장(송석근)은 인사말씀에서 옛 선조님의 고귀한 얼을 배우고 익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고귀한 시간을 갖는 이 자리가 우리 은진송씨 종중의 발전은 물론, 화합을 위한 자리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과 목사공종중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씀을 하였다. 이어 대종손(송교진), 고문(송태영), 파유사회의장(송석범), 대종회파유사

(송석철, 송구영, 송인봉) 등 많은 분들의 인사말씀에서 한결같이 종중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었다.

이어서 송성빈(동춘당문정공파) 종인의 선적지에 대한 설명 시작으로 대덕구 읍내동 제월당 고택 탐방 - 유성구 외삼동 소재 제월당(송규렴 1630~1709), 옥오재(송상기 1657~1732) 묘소에는 모든 분들이 참배를 올려 송인무 공사원으로부터 감사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 공주 송산리(무령왕릉)에 모신 송병문(동춘당의 아들) 선조님 산소 → 그리고 즐거운 담소를 꽃피운 중식을 하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 탐방에서는 고남종 부원장의 환영인사와 송재관 연구위원으



▲ 목사공종중의 선적지 순례

로부터 진흥원내 자료 등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기념 촬영을 한 뒤, 파평윤씨가 옛날에 문중 후학을 양성하였던 종학당, 윤증고택을 방문하

고, 광산김씨 사계(김장생) 선생, 허씨 할머니 묘소로 옮겨 참배를 끝으로 순례를 마쳤다. 돌아오는 길에 참석하신 종인 분들로 부터 훌륭하신 선조님들의 발자취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많은 격려와 호응을 받았다.

끝으로 송서호 회장은 대종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와 호응에 다시 감사드리며, 여건 관계상 촉박한 스케줄에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았으나, 종중 임원님께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즐거운 행사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는 더욱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사공종중 총무유사 송기영)

류조비 묘역 잡초제거작업 실시

2024년 5월 15일 송석근 대종회장과 총무유사, 장재유사가 대전 동구 마산동 류조비 묘역을 방문하여 살펴본 바, 잡초와 잡목이 자라고 있고, 추원사 뒤편에 방치된 불용물품이 발견되어 정화작업을 결정하고 5월 18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인부 3명을 동원하여 류조비 묘역 일대에 대하여 잡초제거와 잡목제거, 폐기물 배출을 실시하였다.

대종회에서는 관동묘려, 쌍청당(대종가 내), 고흥류씨 정려각, 신도비 등의 문화재에 대하여는 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류조비 묘소와 추원사를 비롯하여 쌍청당 묘소와 재실,

지평공 묘소와 재실, 쌍청회관, 원일빌딩, 원일회관, 오성빌딩 등 각 건물을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하여 문제되는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여 종중소유 재산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종회 총무유사 송인집)



▲ 말끔히 단장된 류조비 묘역

전국한자교육 대전광역시 본부 창립총회

2024년 4월 25일 11시 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동 138-39번지에 소재한 비봉서당(飛鳳書堂)에서는 사단법인 전국한자교육총연합회 대전광역시본부 창립대회가 있었다.

이날 비봉서당에는 평일이었음에도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와

한자 교육에 열정을 지니고 있는 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시작된 (사)전국한자교육추진연합회 대전광역시본부(이하 한추총대전본부) 창립대회는 대전청년유도회장 이준건 사회로 개회 선언 내외빈 상호 읍례, 문묘배향 다음으로 내외빈 소개에 이어 이 자리에서 한추총대전본부장으로 추대된 송재선 훈장의 인사말과 심재덕 한추총연합회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송재선 회장은 은진송씨 잠부공파 16대손으로 2002년부터 비봉서당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기초한문인 사자

소학, 추구, 동몽선습, 명심보감과 사서삼경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까지 1:1로 가르쳐 여

기서 배운 실력으로 본인은 물론 문

하생들이 전국 경시대회에 참석, 장원을 휩쓸었고 문체부장관상 6명, 교육감상 100여명이 수상한 바 있다.

송재선 회장은 국내 유일의 여성 훈장일 뿐 아니라 두 번이나 효부상을 받았고 한국서도협회충남지회 초대 작가 한국고불서화협회 초대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회덕·오정·중리 법동중학교 1-3학년을 상대로 찾아가는 서당을 자율학기제로 운영하였고, 대덕문화원에서 명심보감도 강의하고 있으며 회덕향교 수석 장의와 성균관 경전 소리 보존회 지도교수로 활동하는 은송의 자랑스러운 여인상이다.

(송창공파 공사원 송구영)



▲ 전국한자교육 대전광역시 본부 창립총회

선친의 유지를 받들다

나의 유년시절 선친께서는 상대 선조님들의 음택에 대하여 남달리 심혈을 기울였던 모습을 기억한다.

가세가 빈약함은 뒷전이고 오로지 선산을 오르내리시며 편안한 곳을 찾아 피시는 일에 절치부심하였다.

그 당시는 이웃들이 모두 칭찬이 자자하였음이 떠오른다.

선친께서 타계하고 오십여년이 지난 지금, 장례문화가 퇴색하여 현재는 화장이 90%에 달한다고 한다.

기존의 묘소도 파묘하여 화장을 한 후 유골함에 담아 일척광증으로 매장을 하고 그 위에 까만 좌석 한 장을 덮고 마무리 한다. 선친께서 보셨다면 어떠셨을까? 생각만 해도 그 모습이 떠오른다.

직장 근무를 마치고 늦은 시간 평생 교육원에 개설된 풍수지리과목의 2과목을 수강신청하여 6개 학기 수업을 이수하고 전문가 자격증(풍수지리사, 역학상담사, 부동산 공경매사)을

취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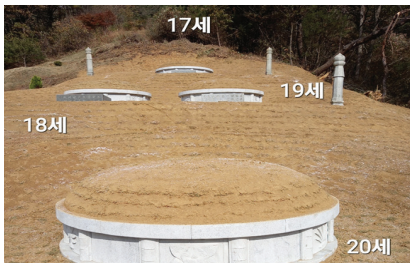
현장실습으로 전국 산을 다니며 체험을 하였었다.

그러나 이론과 실재는 너무나 어설프다. 자격증이 무색하다. 틈만 나면 선대 조상님의 묘역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子·姪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화장을 선호하니 마음이 다급해짐은 어쩔 수가 없다.

선친께서 이룩하신 상대 묘소를 성심을 다하여 풍수적 관점에서 유리한 곳에 점혈을 해서 지난 2023년 3월에 13세부터 10세까지 조성하고, 17세부터 21세는 11월에 모두 조성하여 모시고 원형석으로 마무리 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이제, 누구도 화장으로 유해하지는 못하겠지!

주부공파 송기수 (22세. 사직공중종 공사원)



▲ 2023년 5월 21일 참배

대중회 선적지 순례를 다녀와서

2024년 5월 28일 대중회에서 선적지 순례가 있는 날이다.

아침엔 기차로 갔는데 돌아 올 때는 고속버스를 탔다. 마침 시간이 맞아 프리미엄 버스를 타게 되어 편하게 자면서 올라 왔다. 기차로는 1시간, 고속버스로는 2시간,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이다. 대전을 퇴직 후 거주지로 고려하는 이유이다.

올라와 샤워를 하고 쉬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 본다. 빛나는 5월의 하루 대전을 거쳐 장성을 다녀왔다. 장성의 필암서원과 백양사를 방문한 것이다. 우리 은진송씨 대중회가 기획한 선적지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여행이었다. 작년 모은공파 종회장을 맡게 된 후 대중회로부터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대중회 활동 내용도 궁금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인사도 할 겸 참석하게 되었다.

장성 필암서원은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다. 김인후 선생은 증종~명종대의 대학자이다. 하서 선생의 울산 김씨는 서울에 살다가 태종 때 화를 피해 장성으로 내려와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김인후라는 큰 인물을 배출하였다. 호남 출신으로 문묘에 배향된 유일한 인물이라 한다. 하서 선생은 학문이 출중하여 인종 임금이 세자일 때 가르쳤다. 그러다 인종 임금이 9개월만에 서거하자 장성으로 내려와 후학을 키웠다. 필암서원은 하서 선생을 기려 선조 때 세웠다 한다. 그런데 선적지 순례를 한다면서 왜 필암서원을 갔는가 의문이 들 것이다. 필암서원이 오늘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우암, 동춘당 두 분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은송 선조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서원의 문루 '확연루(廓然樓)'. 확연은 확연대공(廓然大公)을 의미하고 우암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으셨고, 편액을 직접 쓰셨다. 유생들의 강

학 공간으로 청절당(淸節堂)이 있는데, 이는 우암 할아버지께서 쓰신 신도비문에 있는 청풍대절(淸風大節)을 인용한 것으로 동춘당 할아버지께서 쓰신 글자이다. 동쪽 서쪽의 진덕재와 송의재의 글자도 동춘당께서 쓰신 것이다. 하서 선생을 모시는 사당 이름이 우동사(祐東祠) 인데 그 의미는 천우아동(天佑我東)으로 역시 신도비문의 내용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흔적이 곳곳에 있는 필암서원에서 구경만 할 일은 아니다. 참가자 모두 사당에 들러 예를 올렸다. 대중회 회장님께서 현관을 맡으시고, 행사에 참여한 우리 60여명 종인들은 마당에 도열했다. 모두 재배를 하고 독축하였다. 한낱 더위였지만 누구 한 사람 흐트러지지 않고 질서있고 공손하게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위해 마당에 서서 내내 후회를 했다. 선현들께 예를 올리는데 나는 청바지에 잠바 차림이었다. 예의에 어긋난다. 아침에 옷을 입는데 아내가 정중하게 입고 가는게 어떻겠느냐고 권했는데, 나는 탐방 가는 건데 그럴 필요 있겠냐고 일축했었다.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

하루 종일 일정 짜임새 있게 잘 짜여졌다. 식사후 가까운 백양사까지 둘러볼 수 있었다. 아침 먹거리 부터 중간중간 음료수 그리고 해산할 때 선물까지 준비도 많이 했다. 그리고 처음 참석한 나를 어색하지 않게 대해 주셔서 마음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모두가 같은 할아버지 자손이고 모두가 형님, 아저씨, 대부이시니 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오늘 행사 준비하시고 진행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린 형님, 아저씨, 대부님들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행사 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은공파 송덕호 공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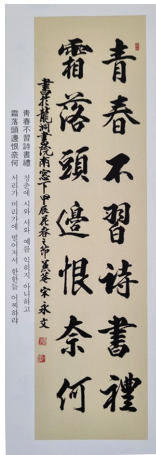
양성서도회 제50회 회원전 개최

1973년 2월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서예와 학문을 교류하고자 양성서도회를 발족한 이후 금년에 52주년을 맞이하여 제 50회 회원전을 개최했다.



▲ 우암문정공파 송영문

2024년 1월에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송영문 회장은 우암문정공파 후손이며, 25명의 회원들의 작품 91점(표구 85점, 병품 2점, 액자 4점)을 5월 23일~29일까지 7일간 대전 중구문화원 전시실에서 가졌다. 송영문 회장은 8점을 출품하였는데 그중 2점을 소개한다.



송영문 액력

- 한국서예진흥협회 대한민국서예대전 특선
- 한국문화예술협회 서예대전 입선1회, 특선3회
- 한국서예진흥협회 특선
- 한국서화(협)서예대전 특선2회 및 특별상
- 전일본서예대전 특선 • 부산 추사서예대전 특선
- 성균관유도회 특선상 2회 • 백제서화공모전 특선2회
- 양성서도회 회장

선대 유적지 탐방 전남 장흥 장천재(長川齋) I

사우당효정공파 공사원 송진팔

*송기로 宋綺老 (大原 21세손, 1830~1898), 호(號)/송석(松石).

동춘당 문정공파 命熙의 子, 生父는 사우당 효정공파 潤熙의 2子로 命熙에 養子 전라남도 장흥부사를 2회 부임한 경력이 있다.

(①회 1883.2~1884.8.→光州牧使→ ②회 1887.4~1888.3).

*송중운 宋鍾雲(1852~1885), 호(號) / 도곡(道谷)

大原 22세손, 生父 宋綺老, 사우당 효정공파 宋絳老(1826~1874)에 養子 이사동 영귀대 봉강정사(鳳岡精舍)에서 난곡(蘭谷)과 강학(講學)

*송병화 宋炳華(1852~1915), 호(號) / 약재(約齋), 난곡(蘭谷)

大原 22세손, 사우당 효정공파, 구한말(舊韓末) 대전지역 성리학자로 이사동 영귀대 봉강정사(鳳岡精舍)에서 평생 강학(講學)

*장천재(長川齋)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에 있는 건물. 장흥 위씨(長興 魏氏)들이 조선 전기(1450년경) 이곳에 장천재를 세워 오랫동안 한학(漢學)의 서재로 이용. 1870년 중건한 건물로서 한 때 존재 위백규(存齋 魏伯珪)가 수학했던 곳이다. 위백규는 이곳 장흥부 계춘동(지금의 관산읍 방촌리)에서 태어나 평생 벼슬을 하지 않고, 학문으로만 일생을 마쳤으며, 천문·지리·율력·의학서 등에 통달하였다.

송석 기로(松石 綺老) 선대께서 장흥 부사(府使)로 재직 시, 장천재 부근의 암석에 암각문 및 장천재에 편액 등을 남긴 곳이다.

이 기사는 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전라남도 장흥(長興)에 다녀왔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찾은 신문 기사 때문이었다. 장흥 위씨 집안에서 난곡 송병화(宋炳華)의 친필(親筆) 목각 현판을 기증했다는 기사였다. 그동안

난곡 조부(祖父)의 현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유물로 기증되었다는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장흥으로 향했다.

장흥(長興), 너른 뜰이 펼쳐져 풍요롭고, 멀리 산세들이 부드럽게 감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이 있는 곳이다. 천관산(天冠山)이 머리에 관(冠)을 이고, 우뚝 솟아 씩씩한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곳. 바쁜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장흥 천관산 아래 위치한 「방촌유물전시관」이라는 곳이었다. 장흥 위씨 집안에서 유물을 기증하여 만들었다는데, 한 집안에서 전시관을 세울 만큼 많은 유물이 나왔다니 참으로 놀라웠다.

도착한 후 전시관을 한 바퀴 돌며 유물들을 구경했다. 수많은 서적과 유물, 임금이 내린 교지(敎旨)부터 집안의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의 업적 등등, 전시관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단일 가문에서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도 놀랍고 보존이 잘 되었다는 점도 경이로웠다. 중증을 운명하는 입장에서 부럽기도 했다. 전

시관을 구경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수장고를 열어 글씨를 보여준다. 실물로 서체를 보니 느낌이 다르면서 감격스러웠다.

성재(誠齋), 두 글자뿐이지만 웅장

한 느낌이 든다. 백여 년 된 조상님의 글씨가 이곳에서 묵묵히 나를 기다렸다는 느낌도 들었다. 오래되어 나무 현판은 칠이 벗

겨지고 조각이 깨지기도 하였지만, 온화하면서도 강단있는 글씨에서 조부의 기품이 그대로 느껴진다. 나는 서예를 보는 안목은 없지만, 글씨를 보니 가슴 어딘가에서 감동이인다. 조부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듯하다. 글씨 한쪽에는 약재노인(約齋老人)이란 낙관(落款)과 도장이 찍혀있다.



▲ 蘭谷 친필, 성재(誠齋)

위씨(魏氏) 집안의 고택에 걸려있었던 현판은 아마도 누군가의 호(號)일 수도 있고, 집에 붙인 이름일 수도 있다. 그래도 뜻은 정성이 깃든 집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정성 성(誠)자는 유학에서 최고의 가치로 꼽는 덕목(德目)이라고 한다. 성(誠)은 하늘의 도(道)고, 성(誠)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도

(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라고 설명하는데, 심오하여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다. 유학의 최고 가치인 성(誠)을 생각

하며, 정성으로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대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알아들었으니 이만하면 됐지 싶다. 조심스레 현판 사진을 찍고 다른 글씨를 봤다.

(다음 호에 계속)

판서공종중 단합대회 개최

2024년 6월 7일 판서공종중 3개파(연안공파, 감역공파, 제월당문희공파) 자손들은 판서공의 유훈과 업적을 봉송하고 종친간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코자 일일 여행을 다녀왔다.

서울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충북 음성읍을 거쳐 대전 만남의 광장에서 대전에서 거주하는 종친들이 탑승하였으며, 이날 행사에는 판서공종중 공사원 송인한(감역공파)과 연안공파 송기선 공사원, 감역공파 송춘영 공사원, 제월당 문희공파 송인무 공사원, 대종

회 송인집 충무유사(삼가공파) 그리고 송담종중 전공사원 송하영(호군공파) 등 36명의 임원과 종원들이 참석하였다.

금년 판서공종중 단합대회 목적지는 백제의 옛 수도인 부여로 정했으며 금강하구에 자리잡은 부여는 6세기 백제 성왕때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수도를 정했으며, 삼국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문화와 역사의 천년고도이며, 공주와 함께 백제의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부여는 완성된 백제 문화를 보여주면서 백제 패망의 아픔도 고스란히 전해주는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득한 곳이다.

사직공종중 장사랑공파 宋在奉씨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 송재봉 의원

원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국회의원 초선의 영예를 안았다.

송재봉은 1969년 강원도 정선군 출생으로 장사랑공파 송동헌(宋東憲)씨와 김금자(金今子) 여사의 6남매중

대전에서 출발한 버스는 1시간 30분만에 부여에 도착. 구드레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황포돛대 유람선을 40여분간 탑승 하였으며, 선장님의 낙화암과 고란사에 대한 설명을 들던 중 낙화암 정면 바위에 붉은 글씨로 낙화암(落花巖)이라 새겨져 있는데 우암 송시열 선조께서 글씨를 썼다는 설명을 들을 때 은송인으로서의 자긍

심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이어서 자동차로 5분거리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불고기와 육회를 안주 삼아 만집인 연안공파 송기선

공사원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종친들과 술잔을 나누며 화기에애한 식사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삼국시대 왕궁(사비성)을 최초로 재현한 대백제의 왕궁이 있는 백제문화단지과 백제 무왕때 별궁의 연못으로 만들어진 궁남지 관광을 끝으로 판서공종중 단합대회를 모두 마쳤으며, 참석한 종친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미리 준비한 음주와 간식으로 정을 나누며 짧은 여행 일정이 아쉽기만 하였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판서공종중 단합대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일정을 모두 마쳤다.

(판서공종중 공사원 송인한)

차남으로, 원주 대성고를 졸업하고 청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충북대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8년 10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문재인 정부)으로 발탁되어 사회조정비서관실과 제도개혁비서관실에서 약 3년간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2022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 부단장,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하였다.

(사)장사랑공파 파우사 송필호)



▲ 판서공종중 단합대회

『송자대전(宋子大全)』 간행 과정

동춘당문정공파 以堂 宋成彬

『문집』이란 저작자의 학문과 사상, 문장은 물론 인적 사회적 관계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더욱이 우암 선생같이 당대의 문인이며 학자로서 후대까지 정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의 문집간행은 모든 식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간행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1. 1691(숙종 17)년 우암 선생 수제자인 권상하는 선생 사후, 본인이 주도하여 이희조와 우암선조님의 손자 송주석이 수습한 글을 모아, 처음으로 『문집』 초고인 황강본을 만들었다.

2. 1717(숙종 43)년 숙종의 명에 의해 문집간행의 명이 내려졌다. 문집은 『송자대전』 간행에 앞서 두 종류가 더 있었는데, 1717(숙종 43)년에 민진후의 건의에 따라 왕명에 의하여 교서관에서 철활자(鐵活字)로 『우암집』을 간행(본디 167권)했고, 뒤에 『경례문답』을 합하여 191권을 간행하자고 숙종에게 건의하여, 1719(숙종 45)년 『우암집』이 교서관인서체자(校書館印紵體字)로 간행되었다.

3. 『송자대전(宋子大全)』의 내용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 1~4는 시부(詩賦), 권 5~26은 소차(疏筵), 서계(書啓), 헌의(獻議) 등의 공거문(公車文)이고, 권 27~129는 서간문(書簡文)이고, 권 130~153은 잡저(雜著)와 기(記), 서(序), 발(跋), 제문(祭文) 등의 산문(散文)이다. 권 154~215는 비문(碑文)과 묘갈문(墓碣文), 행장(行狀) 등의 전기문(傳記文)이고, 다음 19권은 부록(附錄)이다.

특히 우암 선생은 비지문(碑誌文)을 잘 지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선생이 지은 비지문은, 권 154~171은 신도비(神道碑) 96편, 유허비(遺墟碑)와 묘정비(廟庭碑) 정려비(旌閭碑) 등 25편, 권 172~180은 묘갈문(墓碣文) 108편, 권 181은 능지(陵誌) 3편, 권 182~188은 묘지(墓誌) 73편, 권 189~201은 묘표(墓表) 246편, 권 202~205는 시장(諡狀) 13편, 권 206~211은 행장(行狀) 27편으로 총 591편이 전해진다.

4. 『송자대전(宋子大全)』 간행 [1787(정조 11)년]

가. 『송자대전』의 본격적 간행은 정조의 명으로 1787년(정조 11) 우암 선생 탄신 3주 갑(180년)에 맞춰 9월 지금의 평양에 있던 기영(箕營:평양 감영)의 평안감사 조경(趙敬)에게

“비록 대현이 쓰다가 버려진 글이라도 다 수집하여 대전을 만들어라.” 명해서, 모든 문헌을 수집해서 수록하여 『송자대전』을 간행했다. 이에 조경이 사재로 판각한 것이 기영본 판 『송자대전』이다. 제자(題字)는 본손인 송환경이 쓰도록 했다.

간행된 『송자대전』 중 한 질을 선생의 종가에 보내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총 215권 102책(8상자)이다. 정조대왕은 사문대동(斯文大同)의 여론에 의하여 『송자대전』이라 명명하게 하시었다. 우리나라에서子を 붙인 선현은 선생이요, 문집을 『대전(大全)』이라 한 것도, 선생뿐이다. 이것은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본뜬 것이다.

정조께서는, 우암 선생 탄신 3주 갑(180년:1787년) 되는 탄생일에 맞춰 『송자대전(宋子大全)』, 대로사 어필비문과 대로사에 제사를 내린다는 「사제문」도 함께 보냄으로써 우암 선생에 대한 존숭의 마음을 전했으며, 조경이 기영에서 선생의 문집을 중간할 때, 원래 제명(題名)이 『우암집』이었는데, 왕명에 의해 『송자대전』이라 명명했다.

만약 문중에서 『송자대전』이라 했다면 남·소(南·少)가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다.

정조의 명으로 간행했기 때문에 말이 없다. 그래서 탄신 3주갑(180년인 1787)을 기해서 펴냈다.

『송자대전』은 우리나라의 책 중에서 가장 격이 높다. 다음으로 『전서(全書)』가 있는데, 『홍재전서(弘齋全書)』와 『퇴계전서(退溪全書)』, 『율곡전서(栗谷全書)』, 『사계전서(沙溪全書)』 등이 있으며, 대부분은 『문집(文集)』이라고 부른다.

나. 그 후 기영본 『송자대전』은 우암 선생이 노년을 보낸 화양서원에 보관되었다.

화양서원에 보관 중이던 『송자대전』은 1907년 장판각이 있던 환장암에 의병들이 묵었다고 하여, 1907년 대구 병참 수비대 소속군이 불 질렀다. 즉 우암 선생의 배청(背淸) 사상이 항일사상과 직접 연결되니까 맥을 끊기 위해서 만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항로 문하의 유증교·김평묵·유인석·최익현 등, 의병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물들이 모두 우암 선생을 대의(大義)의 연원으로 추앙하면서 도통을 공자·맹자·주자에서 송자로 이어가고 있는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 1907년 분개한 전국 유림이 정병원을 대표로 하여 105인이 결집하여 남간사에서, 다시 판각을 만들 것을 발의하였다. 1909년 유림은 책판 소실의 근본 원인이 수비대의 방

화로 인한 것이므로 책판갱간(冊版更刊)의 경비를 내각에 요구하였으나, 여러 청원에도 지원을 얻지 못하여 『송자대전』의 판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 이후 유림 사이에 『송자대전』의 중간이 본격화된 것은 1925년부터이다. 우암 선생의 고택이 있던 충남 대덕군 외남면 소재리의 ‘기국정’에 중간소를 개소하고, 전국의 유림들에게 통보하였다.

1925년 8월 1일 공론에 따라 영호(嶺湖)의 사우(士友)가 대전시 외남면 소재리에 있는 우암 구택(舊宅)에 모여 중간소(重刊所)를 개소하였다. 유림은 『송자대전』 중간과 더불어 「문인록」의 편집과 간행을 동시에 시도했다. 이로써 1925년 8월 1일부터 시작한 남간정사 본 『송자대전』의 중간은 1928년 12월 12일로 3년 4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송자대전』은 1회 100질, 2회 100질, 3회 260질로 총 460질을 인출 했다.

마. 『송자대전』 중간에 전국 유림이 호응한 것은 유림이 일제강점기에 『송자대전』 중간이 존화양이(尊華洋夷)와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바탕이 일제의 강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

나 생각된다.

『송자대전(宋子大全)』 재발간은 1929년까지 완성하였고, 1930년도에 소재 고택에서 옮겨 세운 사당 건물에 임시 보관하여 그 건물이 임시 장판각으로 사용되었다.

바. 1936년 가을 이범익 지사가 부임하여 남간 영당을 참배하고 그 판본이 아직 각(閣)도 없이 간직됨을 보고서 놀라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 다만 사문(斯文)에만 귀중할 따름이겠는가. 진실로 나라의 보배이다. 어찌 오래 전할 수 있기를 도모하지 않겠는가?”하고서 관비를 엄출하여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고 여기에 소장하여 보존하였다.

이후 남간정사 주변 정화사업으로 부득이 헐리고, 새 장판각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다. 총 5,151판이었다. 그러나 성낙서 씨가 도유사로 있던 시절에 그의 경호원(허 모 씨)을 남간사 관리사에 관리인으로 위촉했는데 몰래 판각 263편을 팔아서 현재는 4,888편이 남아있다.

[이 글은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대전의 역사와 문화재 제14집’ ‘송자대전’ 위정척사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다’(2023.12.)를 보고 보완했음을 밝힌다.

『송자대전(宋子大全)』과 『미수 기언(眉叟記言)』

-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집을, 정조는 주자의 문집(문집 명 :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본떠 『송자대전』이라 칭했다.
- 남인들은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의 문집을, 공자의 문집(문집 명 : 『기언(記言)』)을 본떠 『미수기언(眉叟記言)』이라 했다.

거창 성천서원 춘계제향

은진송씨 선조님 동춘당 송준길을 배향한 경남 거창 소재 성천서원에 서 2024년 5월 22일 춘계 제향 행사가 있었다.

성 천 서 원 은 동춘당 선조가 병자호란을 피하여 덕유산 남쪽, 당시 안음현 지역에서 약 1년여를 보내시는 동안 그 지역 후학들을 가르친 인연으로 사후

1703년 당시 안음현감 정충만이 지금의 함양군 안의면에 성천서원을 건립하였다가 1844년 현재 거창 월성에 옮겨지었다.

후일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훼철되었고 동춘당 선조께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월성초당도 6.25동란 때 불타 없어졌다. 1977년 지역 초당

계에서 서원터에 동춘당 송선생 초당 유허비를 세웠으며 2000년 거창 군청의 지원과 지역 유림들의 성금,



▲ 성천서원 춘계제향

동춘당 문정공 종중의 협찬으로 사우를 건립하고 매년 음 4월 15일에 향사를 올리고 있다.

금년 향사에는 동춘당 문정공종중 송용순 도유사가 초헌관을 맡았으며, 종인 7명과 목사공종중 송서호 회장의 임원, 승지공종중 송용백 도유사등 11명이 향사에 참제하였다. 참제 후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함양 일두 정역창 선생 고택을 견학하고 대전으로 돌아왔다.

(동춘당 문정공파 도유사 송용순)

은진송씨 선조가 모셔진 서원 사우 (17회)

송창공파 공사원 송 구 영

XIV 금담서원(黔潭書院)

1. 현황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712-3
- 창건년대 : 1694년 금담사(黔潭祠 김만기 서)
- 사액연도 : 1695년 금담서원이라 사액 받음
- 배향인물 : 송준길(宋浚吉) 독향
- 문화재지정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1호 (2002.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자료 제10호 (2012.12.31.)

2. 연혁

- 1694년(숙종20) 지방 유림의 공의로 창건하고 이미 노봉서원에 배향되어 있던 것을 분봉하여 독향으로 배향
- 1695년(숙종21) 금담서원이라고 사액
- 1766년(영조42) 금담서원 묘정비를 미호 김원행(溪湖 金元行)이 짓고 늑천 송명흠(櫟泉 宋明欽)이 써서 건립
- 1871년(고종8)에 훼손되어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서원지(書院址)와 묘정비만 남아있고 금담서원에 부속되어 있던 강당 보만정이 1920년 초에 재건되어 현존하고 있다. 이곳에는 동춘당 문집 판각이 보관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3. 인물 약전

동춘당 송준길의 약전에 대하여는 다른 서원에서 기술한 바 있어 이번 호에서는

동춘당의 예학 사상 중 여러 학자들이 논한 동춘당의 주경적(主敬的) 예사상(禮思想)과 예치

의식에 대하여를 써서 동춘당의 예학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조선 시대는 유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 유학은 사실상 理學과 禮學의 양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자는 형이상학적인 이념의 학문이라 하면 후자는 실천적 학문으로서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표리(表裏)의 관계를 이룬다. 따라서 동춘당의 예학 사상 역시 성리학적 이념과 사상이 그 기반이 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스승인 김집(金集)은 禮는 인욕을 억제하며 天理를 보존하는 법칙이라고 하였고, 주희는 禮는 천리를 마디지어 놓는 것으로 人事의 의식과 규칙이라고 정의하고 성현의 千言萬語는 단지 사람들에게 인욕(人欲)을 막고 天理를 보존하는 것이 곧 유교적 禮 정신의 기본이 되는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것은 곧 이념의 요체이며 도통적 禮 정신의 핵 정신이다.

동춘당은 이러한 도통적 禮 정신에 충실하였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늘에 합당하면 이른바 비례물시 비례물동 비례물청 비례물언(非禮勿視 非禮勿動 非禮勿聽 非禮勿言)에 연원하여 예를 정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천리(天理)에 맞으면 예이고 맞지 않으면 非禮라고 단정함으로써 천리의 적합 여부가 예와 비례의 관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춘당은 이러한 예 의식은 위의 양현이 말 한 바의 예의와 일맥상통하나 그것은 ‘사욕(私欲)을 이기고 제거하여 행동이 천칙(天則)에 합치되면 본심의 덕은 온전하여 진다’라고 한 것이나, ‘천리를 한치 키우면 곧 인욕은 한치 소멸되고 인욕이 한 톨 자라나면 곧 천리는 한 톨 소멸된다’라고 한 말들과도 상통한다. 요컨대 희구하는 바는 극인욕 존천리(克人欲 存天理)인 것이다.

그러면 인욕을 억제하여 천리를 보존하게 하는 법칙은 무엇인가? 김집에 따르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는 방법도 바른 예정신의 정립으로 부터 찾아져야 할 것이다.

동춘당이 강조한 주경(主敬)의 정신은 곧 그 구현을 위한 예정신의 요체

라고 할 수 있다.

동춘당은 道를 정의하여 일용지간(日用之間)과 동정지제(動靜之際)에 일의 이치를 잘 살려서 진실로 그 中道를 얻는 것이라고 하고 이로써 덕을 이루면 수기(修己)가 되고 교화



▲ 보만정 편액

를 베풀면 치인(治人)이 되며 수기치인을 극진히 하면 그것이 곧 전도(傳道)인데 도통의 서로 정해진 것이 바로 이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므로 도통이 군왕에게 있다고 이르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렇다면 山林 정치가에 있어서 산림의 종장(宗長)으로서의 동춘당이 희구하는 도덕정치는 곧 주경의 삶을 통한 원리의 보존과 구현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치주의의 지향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그리고 효종 현종에게 매양 도덕 정치를 강조하였고 김장생 김집 정경세 등과의 집요한 예 문답을 통하여 바른 예행(禮行)의 정립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예치주의의 실현은 군왕의 예치 인식과 실천이 긴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민의 예치 진작을 위하여는 士大夫 禮의 체계적 연구와 보급이 긴요한 과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춘당은 예치주의의 기본서로서 또한 가례(家禮) 외에 의전례경전통해(儀傳禮經傳通解)를 중시하였다. 이 책에는 도통의 정맥인 주자가 만년에 심혈을 기울인 예서였다. 그것은 가례와 마찬가지로 주자의 미완성 예서라는 점에서 지적되기도 하지만 가례와는 달리 그 내용이 사례 외에도 향례 학례 왕조례 방국례 등을 주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예치주의적 예서로써 이상적인 기본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동춘당은 효종이 의례경전통해를 간행하여 보급하기 전에 이미 개인적으로 이 책을 구하여 보고 주자가 후학에게 남긴 은총이라고 여기면서 매일 같이 열심히 연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춘당의 도통적 예 인식의 일단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으로 효종은 뒤에 이 책을 간행하여 그 한

권을 동춘당에게 보냈다.

동춘당은 만년에 주자의 자치통감강목(自治通鑑綱目)을 좋아해서 「有事宜」에서 ‘만년에 강목을 좋아하였는데 소인들이 임금을 현혹하게 한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책을 덮고 탄식하였다’라고 전하고 있다.

주자에 의하여 의리로서 재정리된 「강목」은 의리 명분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 시대 山林들의 지남(指南)이 되는 책이었고, 당시 예치주의의 주요한 기본서의 하나였을 것이다.



▲ 금담서원 묘정비

동춘당의 예 사상과 예치적 욕구가 가장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례」에 관한 연구다. 관혼상제의 사례는 기본적으로 사대부를 위한 예서이며 그것은 상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예서라는 점에서 그 활용과 보급의 폭은 실로 평범한 것이었고 또한 그 가례에 관한 연구는 조선의 국제와 속례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수반함으로써 그 예서적 효과를 더욱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다음 호에 계속)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대중회에서는 종보를 통하여 종인 독자 여러분께 종중의 발전을 홍보하고 은송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종보의 발간을 위하여 종인들이 적극적으로 종보 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사 제보를 요청합니다. 보내 주신 원고는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 다 음 -

1. 내용 :
 - 1) 각 파종중의 회의, 행사, 재실이나 산소 정화 등
 - 2) 학위취득이나 각종 시험 합격
 - 3) 승진, 전보, 임관, 개업 등
 - 4) 각종 미담 사례 등
 - 5)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관련 사진 첨부.
2. 보낼 곳 :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61, 원일빌딩 6층 은진송씨대중회
팩스 042-633-0531 / 이메일 ejs0835@hanmail.net
3. 연락처 : 전화 042-256-0835

* 중중을 아껴주시는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

헌성금 및 장학금 납부자 명단 (2024.4.24~6.24)

◆ 대종회 장학성금

송석근	대종회장	200,000
송인집	대전 중구 태평로	100,000

◆ 대종회 선적지순례 찬조금

목사공중중	200,000
송준자 대전 중구 산성동	100,000

◆ 고액 헌성금(연회비) 납부자

송찬현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100,000
송재무	대전 유성구 왕가봉로	100,000
송치옥	서울 노원구 공릉로	100,000
송재철	경남 김해시 가락로	100,000

◆ 중중 및 종친회 연회비 납부자

● 감역공파 오정공중중 500,000

송좌영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송문영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송근영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송희영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한영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인성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인호	서울 중랑구 면목로
송보영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송소영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송인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송대영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
송철영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인석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송인혁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일영	서울 광진구 면목로
송인국	경기 오산시 오산로
송원영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송낙영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송인설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송인보	서울 광진구 자양로
송춘영	경기 하남시 덕풍북로
송인창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송해영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송인덕	
송인복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송원섭	서울 은평구 죽천로
송현섭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송인승	경기 구리시 갈매중앙로
송명섭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장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송호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송인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송인광	경기 의왕시 내손로
송정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송인상	
송인광	서울 광진구 면목로
송인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송민성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송경섭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송인각	
송인빈	서울 관악구 신사로
송원목	서울 용산구 이촌로
송정훈	
송준섭	
송인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송화섭	
송인방	경기 구리시 갈매중앙로
송민섭	
송충섭	
송인하	

● 송창공파 정량공중중 300,000

노촌공중중	대전 대덕구 오정로
송무영	대전 중구 태평로
송인호	대전 대덕구 계족로
송명영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송인혁	세종 장군면 누님이길
송인목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송인국	대전 서구 별곡로
송요섭	대전 유성구 원내로
송석봉	대전 서구 가수원중로
송인범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송인조	대전 대덕구 오정로
송창영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 송창공파 여직공중중 100,000

여직공중중	대전 중구 대흥로
송하섭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송치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송호영	대전 대덕구 덕암로
송성영	대전 서구 관저북로

● 장성공파중중 300,000

송준호	서울 구로구 새말로
송진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송영석	대전 유성구 상대로
송영래	대전 서구 둔산로
송재풍	세종 조치원읍 문화로
송명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송영관	충북 보은군 삼성면 원남로
송규호	대전 중구 태평로
송재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종고개로
송병호	충북 보은군 탄부면
송윤호	대전 동구 성남로
송뢰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천석로
송영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
송재환	충북 옥천군 군북면

● 사)장사랑공파 양오당중중 320,000

송재술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
송성태	경북 포항시 남구 행복로
송형호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
송재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송진영	경북 포항시 북구 용한길
송명호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송진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송태호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송정호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송문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송재관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송창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
송태용	경북 포항시 북구 아치로
송용만	경남 거제시 국산로
송재성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로
송익수	경북 포항시 북구 용한길
송성호	경북 포항시 남구 중원로
송상욱	울산 북구 달천로
송철로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송재흥	경남 거제시 종곡로
송진한	경북 포항시 북구 용한길
송창일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송상영	서울 은평구 불광천길
송해실	경북 포항시 북구 달전로
송경호	경북 포항시 북구 삼호로
송 민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1길
송영춘	경기 안산시 상록구 향가울로
송성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송천술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 경북 칠곡종친회 100,000

송봉현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송철영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구상길
송광호	경북 칠곡군 약목로
송대영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송태호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 한발친목회 300,000

송대용	대전 중구 서문로
송병만	충북 옥천군 군북면 비야대정로
송용순	대전 동구 은어송로
송세현	대전 중구 계룡로
송윤현	대전 대덕구 계족로
송재욱	대전 유성구 배울로
송남섭	대전 중구 충무로
송재욱	대전 서구 문예로
송현호	대전 서구 서문로
송영래	대전 서구 둔산로
송영완	대전 서구 관저동로
송태용	대전 동구 대전로
송영석	대전 유성구 상대로
송규근	대전 중구 대종로

◆ 개인 연회비 납부자

서울특별시

송봉이	서울 금천구 금하로	30,000
송재중	서울 강서구 등촌로	20,000
송우영	서울 동작구 사당로	20,000
송영무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000
송근용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20,000
송상호	서울 은평구 연서로	20,000
송동호	서울 종로구 종로	20,000

부산광역시

송유강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000
송성조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30,000

대구광역시

송재석	대구 서구 북비산로	50,000
송한일	대구 남구 대명서	30,000
송창석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20,000

광주광역시

송용덕	광주 북구 운신북길	30,000
-----	------------	--------

대전광역시

송병수	대전 중구 산성동	50,000
송인선	대전 서구 둔산남로	30,000
송관현	대전 서구 월평동	30,000
송만섭	대전 중구 대종로	30,000
송동호	대전 중구 송리로	30,000

송인길	대전 대덕구 덕암로	20,000
송영대	대전 동구 동구청로	20,000
송세빈	대전 서구 요골길	20,000
송희석	대전 유성구 은구비로	20,000
송신영	대전 중구 목종로	20,000
송광영	대전 중구 선화로	20,000

세종특별자치시

송재길	세종 다정북로	20,000
-----	---------	--------

경기도

송근호	경기 안성시 백성1길	50,000
송근호	경기 파주시 한빛로	50,000
송영두	경기 파주시 창곡동길	30,000
송승영	경기 여주시 가남읍	20,000
송재은	경기 파주시 책향기로	20,000
송천현	경기 파주시 파주읍	20,000

강원특별자치도

송재철	강원 원주시 소초면	20,000
송완호	강원 원주시 호저면	20,000

충청북도

송석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50,000
송준호	충북 괴산군 청천면	20,000

충청남도

송찬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30,000
송기환	충남 금산군 금산읍	20,000
송복환	충남 당진시 석문면	20,000
송인호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북일로	20,000

전북특별자치도

송준호	전북 김제시 제월동	50,000
송성호	전북 익산시 서동로	20,000

경상북도

송덕준	경북 구미시 사상동로	50,000
송춘근	경북 영주시 원당로	30,000

경상남도

송무송	경남 함안군 가야읍	50,000
송순영	경남 합천군 대병면	50,000
송민호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30,000
송광영	경남 진주시 중안동	30,000
송수일	경남 통영시 도산면	30,000
송갑영	경남 김해시 한림면	20,000
송종열	경남 산청군 생초면	20,000
송영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20,000

성명 및 주소미상

송현주	5월 23일 하나은행	10,000
-----	-------------	--------

헌성금 협조 안내

격월로 발행하는 종보는 종인들께서 납부하신 헌성금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뜻있는 종인께서는 헌성금 협조에 많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금 납부계좌]

- 하나은행 : 609-233549-00205 - 농 협 : 351-1084-0817-03

기타안내

[지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주소 확인이 불가하오니 입금 시 독자번호와 이름을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으로 입금 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금 입금 시 대종회로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대종회로 반드시 연락바랍니다.

= 恩宋의 文化財 (25회) =

69. 장성 김인후 신도비

- 종 목 : 전라남도 기념물 제219호
- 분 류 :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 수량/면적 : 1기
- 지 정 일 : 2003.10.04.
- 시 대 : 조선 영조 18년(1742)
- 소 재 지 : 전남 장성군 황룡면 맥호리 산25
- 소 유 자 : 울산김씨 문중



▲ 장성 김인후 신도비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며, 동국(東國) 18현 가운데 1인인 김인후(1510~1560)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신도비이다.

조선 영조 18년(1742, 승정기원후 재임술)에 세운 것으로, 송시열(宋時烈)이 비문을 짓고 비문 글씨는 이재(李穡), 전서는 김진상(金鎭商)이 썼다. 전후면에 각 19행씩, 양 측면에 각 8행씩 모두 54행, 1행 54자의 내용이다.

장성 김인후 신도비는 동국 18현에 드는 학자로서 도학과 절의, 문장을 갖춘 그의 생애와 행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의 명유(名儒)인 우암 송시열이 비문을 지었고 이재가 글씨를 쓰는 등 기록 사료로서의 가치도 커 역사적·학술적·향토사적 가치가 크다.

김인후의 본관은 울산,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또는 담재(湛齋)이다. 모재 김안국(金安國), 신

재 최산두(崔山斗)에게 배웠고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 승문원 부정자에 등용된 이래 홍문관(弘文館) 정자(正字), 옥과현감(玉果縣監)을 지냈고, 도학(道學)과 절의(節義)와 문장(文章)을 두루 갖춘 인물로 널리 기림을 받았다. 시호는 문정(文正, 처음 시호는 文靖)이다.

1796년에 문묘에 배향되었으며, 아울러 대광보국승록대부 영의정

에 추증되었다.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과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를 저술했고 문집으로 『하서전집』이 있다. 장성 필암서원(사적 제242호) 등에 배향되었다.

김인후 신도비는 묘역 입구에 있는데, 거북이 모양으로 만든 받침돌 위에 비몸을 세우고 머릿돌을 올린 모습이다.

70. 상주 흥암서원

- 종 목 : 경상북도 기념물 제70호
- 분 류 : 유적건조물/교육문화/교육기관/서원
- 수량/면적 : 10동, 7,527㎡
- 지 정 일 : 1985.10.15.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재 지 : 경북 상주시 연원1길 34
- 소 유 자 : 흥충보존위원회



▲ 흥암서원 전경

동춘당 송준길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송준길(1606~1672)은 조선 후기 문신이며 뛰어난 학문과 바른 행실로 추천을 받아 관직에 올랐다. 김장생의 가르침을 받은 성리학자로서 특히 예학에 밝았다.

흥암서원(興巖書院)은 숙종 28년(1702)에 세웠으며 숙종 42년(1716)에 임금으로부터 이름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경내 건물로는 흥암사, 진수당, 집의재, 의인재, 어필 비각 등이 있다. 위패가 있는 흥암사는 앞면 3칸·옆

면 3칸 규모로,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과 비슷한 맞배지붕이다. 강당 구실을 하던 진수당은 앞면 5칸·옆면 3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으로 꾸몄다. 집의재와 의인재는 학

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던 곳이다. 어필비각 안에는 숙종이 지어준 ‘흥암서원’이라 새긴 비가 있다.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폐쇄되지 않고 남은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 흥암사(사당)

71. 동춘간첩(同春簡帖)

- 종 목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9-16호
- 분 류 : 기록유산
- 수량/면적 : 135건
- 지 정 일 : 2010.10.14.
- 시 대 : 조선 후기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7, 경남대학교 박물관
- 소 유 자 : 경남대학교 박물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1605~1672]이 쓴 유묵과 편지를 모은 서간첩.

동춘간첩(同春簡帖)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초대 통감을 지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가 재임 기간에 수집했던 자료로 일본 야마구치현립대학(山口縣立大學) 도서관 데라우치 문고[寺內文庫]에 소장되어 있었다. 경남



▲ 동춘간첩

대학교는 1996년 98종 136점의 조선 관계 자료를 야마구치현립 대학으로부터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동춘간첩은 그중 1종이다. 송준길의 본관은 은진, 자는 명보(明甫)이다. 문묘(文廟)에 배향된 해동 18현(海東十八賢)의 한 사람으로, 동종(同宗) 형제인 송시열(宋時烈)과 더불어 서인 노론을 이끌었다.

예학(禮學)에 밝았으며,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동춘간첩은 30쪽으로 구성되었는데, 책의 맨 앞쪽과 뒤쪽의 각 면에는 초서(草書)로 쓴 대자(大字)가 한 자씩 모두 네 자가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10통의 편지이다. 크기는 37.6cm×27cm이며 책의 상태는 양호하다.

동춘간첩은 친구인 죽천(竹泉)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것이다. 편지들은 상태가

양호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편지 중에 1671년 2월 1일에 보낸 것은 66세라는 고령에다 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조정의 부름을 받아 벼슬길에 나가야 하는 그의 절박한 심정을 친구에게 호소하고 있다. 2010년 10월 14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09-16호로 지정되었다.